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40. 덴마크 국립 미술관 1

SMK라고도 부르는 덴마크 국립 미술관은 Solvgade 48에 위치하고 있다. 크리스천보그에서 26번 버스를 타고 Georg Brandes Plads 라는 곳에서 내리면 된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빨간 제복을 입은 사람 둘이 백마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보그 궁전 근처였기 때문에 혹시 왕궁에 속하는 마차인가 하고 유심히 보았는데 R이 관광객을 위한 택시 마차 같다고 한다. 지나가는 길에는 선물가게들이 있어서 진열장을 구경하면서 갔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문은 닫혀 있었다. 예쁜 미니어저 인형들과 인형 집, 가구들을 보면서 잠시 아련한 동심으로 돌아갔다.

버스에서 내려 멀리 보이는 국립 미술관으로 걸어간다. 코펜하겐에는 길 이름이 벽에 붙어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된다. 그대신 복잡한 길 사인 판이나 간판 등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결하고 정돈 되어 보인다. 도시가 작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다.

국립 미술관은 을씨년스런 날씨에 눈 덮인 공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엘리자베스 웨어링이라는 영국 작가가 만든 조각 작품이 서 있었는데, 덴마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가족을 뽑아 그들의 청동상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었다. 덴마크를 대표한다는 가족은 아버지는 백인, 어머니는 흑인, 아이는 혼혈이었고 두꺼운 겨울 차림을 한 동상인데 재미있는 것은 동상들이 다 진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이었다. 코펜하겐에서는 어디를 가나 대부분 북유럽 백인들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쩌서 백인/흑인 부부 가정을 덴마크 대표 가족으로 뽑았을까 의구심이 들었으나 마침 작가의 전시회가 안에서 열리고 있으니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로 했다.

미술관 입장 티켓은 165 크로나. 30세 이하는 할인해 준다. 티켓 판매소에 안내 직원이 너무나 상냥한 덴마크 아가씨였다. 곱슬곱슬한 금발에 뺨이 사과처럼 빨간 아가씨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본다. 좋아하는 덴마크 화가 빌헬름 함메르쇠이(Vilhelm Hammershoi)의 그림을 보러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면서 함메르쇠이 전시실이 따로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 아가씨에게 함메르쇠이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천천히 발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가씨는 예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성심껏 말했는데 정말 오묘한 소리였다. 모음이 21개나 되는 덴마크어는 외국인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심지어는 덴마크 아기들도 배우기 어려워 말이 늦는 아기가 많다고 한다). 아가씨는 함메르쇠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모음이 덴마크어에만 있는 발음이라며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이는데 따라하기 도저히 불가능했다. 덴마크어는 심하게 목에 걸린 듯한 소리가 나고 높낮이가 차이 나는 발성으로 때론 중국어처럼 들리기조차 한다.

따뜻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자 외부가 거주장스러워졌다. 우리는 지하실에 있는 사물함에 외투와 가방을 벗어 놓고 다시 올라 와 카페테리아를 찾았다. 아까 먹은 브런치가 짝였는지 목이 심하게 말랐기 때문이다. 생수를 사야하는데 카페테리아가 어디 있냐고 미술관 직원에게 물었다. 호리호리한 할머니 직원은 '덴마크에서는 물이 좋아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생수를 사고 싶으시면 저쪽 계단으로 내려 가세요'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덴마크 수돗물이 좋지만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익숙지 않아 종이 팩에 들어 있는 생수를 샀다. 물은 아주 맑고 맛있었다. 우리는 앞에 공원이 훤히 보이도록 전면을 유리로 만든 카페테리아의 보라색 의자에 앉아 한 통씩 시원하게 물을 마셨다.

■ 잠깐 상식

중세까지도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길렀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머리를 한층 더 길어 보이려고 가발을 쓰기도 했다.



영국의 헨리 8세(그림)는 마침내 이같은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을 없애기 위해 모든 신사는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의 반발에 대비해 턱수염과 콧수염은 기르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수염을 짧게 하고 머리를 길게 하거나 수염을 길게 하고 머리를 짧게 하는 두 스타일이 유행하다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짧은 머리가 우세를 보이면서 남성의 머리가 점차 짧아지게 되었다.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24 시간 **제이킴**
714.249.5469

HACCP인증과 FDA승인을 받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봉화김치

봉화 청량산 김치
KOREAN CABBAGE | 포기김치 **MADE IN KOREA**

봉화 청량산 김치 10kg \$40 5kg \$22	봉화 청량산 백김치 4kg \$25	봉화 청량산 총각김치 2kg \$30
봉화 청량산 파김치 2kg \$35	봉화 청량산 갓김치 2.5kg \$28	봉화 청량산 동치미 2kg \$20
봉화 청량산 식바지 2kg \$20	봉화 청량산 깍두기 2kg \$15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재료로 **한국의 맛을 담았습니다**

한국직수입! 봉화 청량산 김치!

NO 방부제 NO 조미료 NO 색소 NO 화학첨가물

안전하고 맛있는 **봉화 청량산 김치!**

농수산물 마트 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옆)

Commonwealth 은혜교회
Bookhurst 91
5